광주 관광 명소 주차난 숨통 트인다

남구, 양림동·전통시장 등 2024년까지 공영 주차장 895면 조성

광주 남구가 공영 주차장을 대폭 확대해 구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나섰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된 광주 문화역사권역인 양림동·사직동의 주차장 신설은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불편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남구는 8일 광주 관광명소로 이름난 양림동과 사직동 그리고 구도심 골목 및 주택가와 전통시장 등에 오는 2024년까지 895면의 공영 주차 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현재 남구 곳곳에서는 주거지 주차장 등 공영 주차장 건립을 위한 각종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우선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방림2동과 백운1동·월산5동·양림동·사직동 등 5곳 주차 공간 122면 확충을 위한 구도심 주차장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방림2동 공영 주차장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13면, 백운1동에는 4월 완공을 목표로 단독주택과 원룸가에 공영 주차장 12면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연말 완공 예정인 월산5동 공영 주차장은 상가와 주택 밀집 지역에 주차 공간 24면이 조성되며, 사직동에는 내년 말까지 주차 공간 45면을 갖춘 공영 주차장이 들어설 방침이다.

관광명소인 양림동 일대에는 올해 연말까지 무등파크맨션 맞은편 주택가에 공영 주차장 건립이 예정돼 있으며, 양림동 일대에 28개의 주차면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남구는 또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통한 공영 주차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문을 연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24면이 확충됐으며, 오는 2023년까지 가족사랑 나눔센터와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방림 및 사직골 생활문화센터, 진월동 남구 국민체육센터 주변에도 주거지 주차장 등 공영 주차장 143개면이 추가로 확보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2024년에는 효덕동 행정복합센터와 송암동 행정복합센터에도 주차 공간 66면을 증설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면 확충도 눈에 띈다. 남구는 무등시장과 봉선시장에 올해 10월까지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공영 주차타워를 건립한다. 무등시장 114면, 봉선시장 125면의 주차 공간이 새롭게 마련된다.

이와 함께 남구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영 주차장 325면도 확보하기로 했다.

먼저 양림동 '펭귄동굴' 인근에 지상 2층·184면 규모의 공영 주차타워 건립이 진행 중이며 올해 3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남구청의 역점사업인 백운광장 주변에 조성되는 '스트리트 푸드존' 인근에 대규모 로컬푸드 공영 주차장 건립도 추진 중이다. 오는 2023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141면을 확충할 예정이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지난해 진월동에 주차 공간 61면을 갖춘 효덕 공영 주차장을 완공하는 등 주차 공간 확보에 전력을 쏟고 있다. 주차장이 주민 편의는 물론 관광객과 경제 활성화에도 직결되는 만큼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가축전염병 꼼짝마 8일 오후 장성축협 공동방제단이 장성군 삼서면 한 가금농장앞 진입도로에서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소독액을 살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대 학생팀 개발 기술, 기업 이전 '성과'

간척농지 염농도 자동계측 기술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개발한 간척농지의 염농도 자동 계측 기술이 기업체로 이전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전남대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의 기후지능형 간척지농업교육연구 BK21팀 소속 정영재·서보성 대학원생과 백누리 학부생은 간척농지의 염농도 자동 계측 알고리즘 개발 결과를 토양센서 설치 기업인 ㈜C&H에 기술 이전했다.

우리나라 간척농지는 전체 농경지의 20% 정도로 식량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해안가에 위치한 탓에 토양의 염농도가 높아 농업 생산성이 낮다는 결점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토양의 염농도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해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염농도 측정 알고리즘 개발이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학생연구팀은 간척지 토양 센서에서 측정하는 전기적 신호를 토양 염농도로 환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 기술은 관련 기업에서 사용가능한 실전용이어서 곧바로 기술이전까지 이어졌다.

실제로 ㈜ C&H는 이전 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간척농지 염농도 모니터링 및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간척지 개발 및 관리 주무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지원으로 수행됐다. /채희종 기자 chae@

화순전남대병원 로봇수술 연간 300례 돌파

작년 302건…전년비 101% 증가
비뇨의학과 1대당 수술 전국 2위

화순전남대병원의 로봇수술이 지난해 연간 300례를 돌파했다. 이는 전년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8일 지난해 다빈치 로봇 수술 건수가 302건으로, 전년(150건)대비 101% 성장했다고 밝혔다.

진료과별로 로봇 수술은 비뇨의학과가 268건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이어 대장항문외과 25건, 위장관외과 8건, 흉부외과 1건 등이었다.

다빈치 로봇 수술을 시행하는 전국 72개 병원 가운데 로봇 1대당 비뇨의학과 수술 건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호남·제주 기준으로는 가장 많다.

연도별 로봇 수술 건수는 2018년 52건, 2019년 82건, 2020년 150건, 2021년 302건으로, 해마다 2배가량 성장하고 있다.

다빈치 로봇 수술은 개복수술이 아닌 환자의 피부에 작은 구멍 몇 개를 뚫어 로봇팔을 삽입해 수술하는 '최소침습수술방법'이다. 로봇 수술은 일반적인 수술과는 다르게 집도의가 조정부스에서 로봇을 원격 조정해 수술을 진행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인사 단행…첫 여성국장 탄생

전남도교육청이 3월 1일 자로 정책국장에 순천별량중 이계준 교장을, 교육국장에 조정자 정책국장을 발령하는 등 주요 인사를 단행했다.

조정자 신임 교육국장은 도 교육청 개청 이래 최초의 여성 국장이다.

초등 출신인 조 신임 교육국장은 도 교육청·광양·고흥·순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광양마동초등학교 교장,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을 역임했다.

정책기획과장에 김설오 매성고 교장, 혁신교육과장에 김유동 혁신교육과 혁신학교팀 장학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에 조영래 체육건강예술과장, 체육건강예술과장에 양기열 체육건강예술과 체육교육팀 장학관을 각각 임용했다.

교육연수원장에 윤기정 담양중 교장,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에 김태문 본청 정책기획과장,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최광표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범미경 본청 혁신교육과장을 각각 발령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학교 현장 중심, 역량 중심의 이번 인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전남교육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전남교육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 광주교육감 출마 선언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이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교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로운 교육의 깃발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 중심 교육자가 되고, 현장 교육자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광주교육의 발전을 새롭게 견인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의 인재 대들보는 호남에서 배출된다는 그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재의 요람이 광주가 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창의교육, 혁신 교육을 강화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스마트 인재, 디지털 인재 등 맞춤형 인재,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대전환의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4주체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학교를 학생들과 교사들이 꿈을 꾸고, 행복을 키우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면서 "건강한 체력과 바른 인성, 전문능력 등 종합적 역량을 겸비한 전인적 학생을 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장은 함평 출신으로 광주교대를 나와 초등 교원을 거쳐 광주교대 교수로 총장을 지냈다. 2010년과 2014년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며 국민의 힘 전신인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을 역임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광주 서구, 가구당 최대 352만원

광주 서구가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 예방과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위해 올해에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1억 5000여 만원으로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도 포함된다. 가구당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철거·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3월 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062-360-7664)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